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사기가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다. FTC에 따르면 최근들어 신뢰도 있는 기업들을 가정한 문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가족 목소리로 변조하는 사기까지 횡행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보스톤 한인 피아노의 거장들이 총 출동한다

김정자, 변화경, 백혜선, 손민수 교수 등 6인의 특별한 피아노 음악회  
오는 9월 30일 조던홀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편집부 = 존경받는 연주자와 스승으로 오랜 세월동안 보스톤 음악계를 지켜온 보스톤 컨서버토리 (Boston Conservatory at Berklee)의 김정자 교수와 뉴잉글랜드 음악원(New England Conservatory, 이하 NEC)의 변화경 교수, 그들의 뒤를 잇는 중견 연주자 백혜선 교수와 손민수 교수, 그리고 젊은 음악가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변은선 (Hannah Byun), 신창용 씨가 함께하는 특별한 피아노 음악회가 열린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는 오는 9월 30일 (토) 저녁 7시 30분에 NEC의 조던홀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여섯 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하는 <Piano Extravaganza: Three Generations of Pianists>를 주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음악회는 모든 곡 ▶2면으로 계속

## 아들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에 정말 속을 뻘 했던 사기, 뭐길래

FTC, 전화로 인한 사기에 가장 큰 돈 잃어, 문자 등에 조심해야  
최근에는 AI 이용 가족 목소리로 변조, 급한 돈 요구해  
소셜미디어 통한 사기에도 속수무책, 가장 많은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미국인들은 올 상반기 동안 사기당한 수는 줄었으나 사기 금액은 훨씬 커졌으며 특히 지난해 부터는 사업체로 가장한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민족미디어서비스(EMS)가 1일 개최

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1백10만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사기 피해금액은 44억달러에 달했다.

상반기 집계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접근하며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상반기 소셜미디어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6억5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한인 피아노의 거장들이 총 출동한다

▶▶1면에 이어서

이 독주가 아닌 투 피아노/포 핸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K. 381>, 드뷔시의 <Petite Suite>, 코플랜드 작곡/번스타인 편곡의 <엘 살롱 멕시코>, 슈베르트의 <Divertissement à la Hongroise, D. 818>, 라벨의 <라 발스>가 모두 두 명의 피아니스트를 위한 버전으로 연주된다.

첫 번째 세대에 속하는 김정자 교수와 변화경 교수는 각각 젊은 시절에 도미하여 뛰어난 연주와 음악성을 인정받았으며 1970년대부터 보스톤에서 후학 양성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였고 1972년부터 보스톤 콘서버토리에서 재직 중인 김정자 교수는 뉴욕 타임즈로부터 “생동감 있고 설득력 있는 놀라운 연주”라는 평을 받았으며 영콘서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 1위와 카지어스코 쇼팽 컴피티션 1위를 수상하였다. 록펠러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고 뉴욕 필하모니, 볼티모어 심포니,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서울 필하모니, 체코 내셔널 심포니를 비롯한 여러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하게 근래까지

음반 활동과 연주를 계속하였다.

보스톤 글로브로부터 “황홀하고” “시(詩)적”인 연주라는 평을 받은 변화경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총장상을 받으며 최우등 졸업을 한 후 NEC에서 러셀 셔먼, 루돌프 콜리쉬 (실내악)교수를 사사하였다. 1979년부터 모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학생들을 향한 열정적인 가르침과 세심한 돌봄으로 유명한 그녀는 NEC가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레서 어워드의 제 1회 수상자이다. 또한 보스톤의 중국 공연예술재단이 수여하는 우수 교수상, NEC 예비학교가 수여하는 스태하우스 어워드, NEC의 크라스너 어워드 등을 통해 교수로서의 업적과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두 번째 세대에 속하는 백혜선 교수는 현재 NEC피아노과에서 공동학과장을 맡고 있다. 10대 시절에 월넛 힐 예술학교/NEC 예비학교로 유학을 와서 러셀 셔먼과 변화경 교수 부부의 지도 아래 모든 대학과정과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마친 그녀는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을 통해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서울대학교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귀국한 뒤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도미하였다.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8년에 모교인 NEC로 돌아와 많은 환영을 받았다.

역시 두 번째 세대에 속하는 손민수 교수도 NEC에서 러셀 셔먼과 변화경 교수 부부의 지도 아래 학사 학위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은 보스톤 출신이다. 캐나다 호넨스 국제콩쿠르 1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콩쿠르 3위에 입상한 그는 졸업 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이번 9월부터 모교인 NEC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그가 연주한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2011)은 뉴욕 타임즈의 ‘올해의 최고 클래식 레코딩’ 목록에 올랐다.

세 번째 세대로는 현재 NEC에 재학 중인 신창용과 변은선이 참여한다. 신창용은 미국의 지나 바크하우어 콩쿠르, 힐튼헤드 콩쿠르, 서울국제콩쿠르 등의 우승자이며 현재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있고,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변은선(Hannah Byun)은 월넛힐/NEC 예비학교 졸업 후 NEC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최 측인 한미예술협회는 “오랫동안 보스톤 음악계 그리고 한인들의 자랑이었던 김정자 교수님과 변화경 교수님, 그 명성을 이어가는 백혜선 교수님과 손민수 교수님, 그리고 성장하는 젊은 세대 음악가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 독주가 아닌 앙상블 연주로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전했다.

Piano Extravaganza: Three Generations of Pianists  
 일시: 2023년 9월 30일 (토) 오후 7시 30분  
 장소: New England Conservatory Jordan Hall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티켓 및 정보: www.kcsboston.org (일반 \$30/시니어 \$20/학생 - 사전 등록 시 무료)  
 bostonkorean@hotmail.com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eo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재미대한 보스턴체육회, 모국 방문 행사 성공리 개최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편집부 = 경기도 태권도협회 미국재단, 재미대한 보스턴체육회(회장 오진욱), 재미대한 보스턴태권도협회(회장 홍순우) 3개 단체는 경기도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11일간 대한민국을 방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Journey to the Legac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경기도 태권도협회에서는 미국 보스턴에서 온 방문단을 환영하며 만찬을 함께했다. 방문단은 이후 국가원, 태권도원, 춘천 세계태권도대회, 국기원, 경복궁, 낙산사, 속초중앙시장,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인사동, 열쇠전망대, 파주 태권도 시범공연, 전통염색하기, 떡만들기, 내린천 래프팅 등 대한민국 곳곳을 방문하고 체험했다.

재미대한 체육회 오진욱 회장은 8

월 3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 지회(회장 배윤길)와 양측 임원진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래인재 양성 글로벌 교류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고 도봉구 소재 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과 지난 8월4일 도봉문화재단 돌리뮤지엄에서 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보스턴 체육회는 연계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인재 양성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우 재미대한 보스턴 태권도협회 회장은 "지구온난화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한국의 8월의 날씨에 계획된 일정을 잘 조절해서 성공적으로 태권도의 종주국이자 역사를 아서 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였다" 고 했다.

홍 회장은 특히 "일정 중 무더위, 태풍, 그리고 홍수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지만 작은 사고 없이 무사 귀환한 것에 감사"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했던 보스턴 지역 사범들과 태권도를 배우는 미국인들은 그동안 태권도 외에 K-드라마와 K-pop으로 가까워진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고 감사를 전했다.

재미대한 보스턴 체육회와 재미대한 태권도 협회는 "경기도 태권도협회 미국 지사가 보스턴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매해 더욱 알차고 즐거운 한국방문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중" 이라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동부말뇌염(EEE) 모기 2020년 이래 처음으로 발견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1일 모기 채집 샘플에서 동부말뇌염(eastern equine encephalitis, or EEE)을 2020년 이래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모기 샘플은 우스터카운티의 더글라스와 사우스브리지에서 채집됐으며 EEE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보건부 로버트 골드스타인 장관은 "지난 2019년 2020년 시즌에 EEE가 창궐했던 이후 2021과 2022년에는 EEE 모기의 활동의 거의 없었다" 며 "약간 늦은 시즌이지만 모기로 인한 질병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어지므로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 내에서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발병한 사례는 없다. 2019년 12명이 EEE에 감염됐으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는 5명이 감염됐으며 1명이 사망했다.

주 보건부는 더글라스, 더들리, 사우스브리지, 옥스브리지, 그리고 웹스터 등을 포함한 우스터카운티 소속타운의 위험수준을 보통 수준으로 격상 시켰다.

EEE는 드물지만 전 연령대의 사람에게 발병하며 감염된 모기를 통해 전파된다. EEE는 감염됐을 경우 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 확률도 극히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WSJ이 선정한 2023 파격 대학 순위, 뱍슨이 칼텍보다 앞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4개 대학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 발표한 미국대 대학순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WSJ는 2023년 대학순위 산정에서 기존의 평가와 달리 졸업율, 연봉 등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내 대학들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미국내 대학중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이 1위를 MIT가 2위를 그리고 하버드는 6위, 애머스트칼리지가 8위, 뱍슨 칼리지가 10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부터 대학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는 WSJ은 올해 들어 “대학의 학생 가치 향상 기여도”에 초점을 두고 평가 방법을 바꿨다. 기존에 주요 평가항목이었던 대학의 평판, 그리고 대학의 부유함 등의 항목은 배점을 줄였다.

WSJ “대학의 졸업율 졸업 당시 연봉 등의 졸업생들의 성취도의 중요성을 높였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생의 성공 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대학이 학생의 성공에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뉴튼에 위치한 뱍슨 칼리지의 경우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다른 대학은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다. 플로리다대학(15위), 뉴저지공대(19위) 등이 전국 상위순위에 올랐다. 뱍슨의 경우 2022년 전국 122



WSJ 대학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MIT

위였으나 올해 10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2022년 상위 10안에 있었던 브라운 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은 각각 6위와 9위로 밀려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칼리지펄스(College Pulse)와 스테이시스타(Statista)와 공동으로 학생들의 성취도(70%), 학습환경(20%), 그리고 인종다양성(10%)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번연도 순위를 선정했다.

학생들의 성취도는 정해진 시간안에 졸업율, 졸업 후 연봉, 그리고 학업비용(학비, 수수료, 책, 기숙사 및 거주비용)을 고려해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의 연봉에 더해진 가치를 통해 평가했다.

다음은 매사추세츠 주내 20위 대학 순위다.

hsb@bostonkorea.com

### TOP 20 COLLEGES IN MASSACHUSETTS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No. 2 nationally)
2.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No. 6 nationally)
3. Amherst College, Amherst (No. 8 nationally)
4. Babson College, Wellesley (No. 10 nationally)
5. Williams College, Williamstown (No. 31 nationally)
6. Boston College, Chestnut Hill (No. 45 nationally)
7. College of the Holy Cross, Worcester (No. 60 nationally)
8.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Worcester (No. 61 nationally)
9. Wellesley College, Wellesley (No. 117 nationally)
10. University of Massachusetts-Lowell (No. 137 nationally)
11.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 (No. 138 nationally)
12. Stonehill College, Easton (No. 157 nationally)
13.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No. 190 nationally)
14. Boston University (No. 200 nationally)
15. Brandeis University, Waltham (No. 223 nationally)
16.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No. 242 nationally)
17. Suffolk University, Boston (No. 244 nationally)
18.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No. 281 nationally)
19. Mount Holyoke College, South Hadley (No. 282 nationally)
20. Tufts University, Medford (No. 287 nationally)

### TOP 25 COLLEGES NATIONWIDE

1.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ss.
3.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
4.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
5.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6.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7.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8. Amherst College, Amherst, Mass.
9. Claremont McKenna College, Claremont, Calif.
10. Babson College, Wellesley, Mass.
11. Swarthmore College, Swarthmore, Penn.
12.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13.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
14. Lehigh University, Bethlehem, Penn.
15.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a.
16. Duke University, Durham, North Carolina
17. Rose-Hulman Institute of Technology, Terre Haute, Ind.
18.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Calif.
19.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Newark, NJ
20.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21. Dartmouth College, Hanover, NH
2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lif.
23.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Chicago, Ill.
24.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25.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휴람 코리아 매니저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 그론업 촬영지, 웨스트포드 호수서 수영하던 18세 남성 사망

지난 5년간 2명째 사망, 각종 위험 도사린 입장금지 호수 웨스트포드 메릴스 퀴리, 그론업2 촬영지로 유명해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웨스트포드 소재 채석장에 형성된 연못인 메릴스 퀴리(Merrill's Quarry)에서 수영하던 18세의 젊은이가 4일 익사했다.

웨스트포드 911은 4일 오후 4시 16분께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한 사람은 이 학생이 절벽 위에서 뛰어 내렸던 이 젊은이가 점프 후 떠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웨스트포드 및 로웰, 팅스보로 등지의 소방관들이 구조에 나섰다

주 경찰은 헬리콥터로 현장을 수색했다. 수중 다이빙 팀은 5시 24분에 서야 40피트(11미터) 수중에서 시신을 발견해 건져냈다. 사망자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 중이었다.

수색 중 한 팅스보로 소방관은 부상을 입어 로웰제너럴호스피탈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마이크 데니 웨스트포드 부소방서장은 “지난 주에도 한 사람이 뛰어 내린 후 문제가 있어 그를 구조하려 왔으며 다행히 그는 구조되어 회복 중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는 17세의 로렌스 거주 학생이 친구와 이 연못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

WBZ의 티비의 보도에 따르면 이 메릴스 퀴리는 2013년 아담 샌들러가 주연한 영화 “그론업2”의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이 메릴 퀴리는 사유지로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 퀴리에는 “접근 금지”란 팻말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종종 이를 무시한다고 데니 부서장은 밝혔다.

데니 부서장은 “이 연못은 아주 위험한 곳이다. 밖에서는 약 4피트 정도의 깊이까지만 볼 수 있으며 그 밑에 어떤 것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고 말했다.

웨스트포드 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이 채석장 연못은 깨진 병,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 깎아지른 절벽, 수중 안으로 보이지 않는 돌출 바위 그리고 다른 위험 요소들이 수중에 가득하다. 이 같은 위험 요소로 인해 과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고 이곳을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현재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해리스 월로바, 고편드미 사진

# 우스터 하이스쿨 학생 매운칩 먹기대회 이후 사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셜미디어의 매운칩 먹기 대회에 참가했던 14세의 해리스 월로바 학생이 9월 1일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친척이 개설한 고편드미 웹사이트에 따르면 매운 칩 먹기 대회인 “윈칩챌린지”에 참여했던 월로바 학생은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사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이 카롤라이나 리퍼 페퍼와 네이거 바이퍼 페퍼 맛의 칩을 한 봉지 먹은 후 물이나 우유 등 다른 완화 식품을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 칩 제조사는 매운 음식과 고추에 민감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학생은 칩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호흡곤란이나 기절, 또는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병원을 찾으라고 권장하고 있다.

월로바 학생은 9월 1일 금요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실을 찾았으며 부모가 그를 일찍 조치시켰다. 그러나 약 4시 30분께 우스터 경찰은 응급구조 신고를 받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으며 호흡을 멈췄다. 병원으로 호송된 후 그곳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우스터 검시소에서는 현재 사인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국세청, ERC사기 경고하며, 크레딧 지급 늦춰 감사 강화

스몰비즈니스 ERC 신청 급증으로 80만 건 밀려 있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국세청(IRS)이 팬데믹 시절 프로그램인 종업원보유크레딧 즉ERC(employee-retention tax-credit) 프로그램에 대한 크레딧 지급을 늦추고 이 신청과 관련된 사기 그리고 과장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IRS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ERC 관련) 업체들의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모호한 ERC 신청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IRS는 사기성 또는 부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서 처리를 늦추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세청의 발표는 지난 몇 년간 ERC 관련 신청 업체들의 급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속 조치에 해당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국세청은 심사 후 이미 지급했던 ERC 크레딧에 대해서도 회수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많은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지적했다.

의회는 지난 2020년 팬데믹의 시작과 더불어 케어스법안(CARES ACT)를 통해 종업원 보유 크레딧을 만들었다. 당시 목적은 비상상황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했던

고용주들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기간동안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거나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비상 명령으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했던 업체들에게 종업원당 최대 \$26,000까지 되돌려 주는 크레딧이다.

ERC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 몇 차례 변경됐었다. 이 ERC는 2021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나 아이러니하게 이에 대한 신청은 종료 후부터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의 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들의 급여세금 보고(Payroll tax return)에 대해 3년에 이르기까지 수정해 크레딧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ERC신청 대행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대행 사업체들은 스몰비즈니스 사업주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했었다. 이들 업체는 크레딧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 회계사에 따르면 이 같은 수수료는 일반 회계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 회계사는 이들 업체는 세금 및 법률적 조언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까지 IRS는 총 1500억 달러를 ERC 크레딧으로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지난 7월까지

약 2천200억달러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투자회사 파이퍼샌더는 밝혔다. 이는 당초 의회가 계산했던 것 대비 무려 3배나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수개월 동안 ERC에 대한 잘못된 신청과 사기 신청에 관한 경고를 내보내 왔다. 또 일부 회계사들은 많은 ERC 신청 대행업체들이 기준을 너무 확대 해석해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 맥케이브 회계사는 “신청 대행사들은 사람들에게서 두려움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 같은 신청 폭주를 신청서 처리를 지연으로 완화하고 좀더 방법론적인 접근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국세청의 이번 조치를 분석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국세청이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맥케이브 회계사는 “최소한 방지 말았어야 할 돈을 추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야 하는 일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전문고용주조직협회의 팬클리어리 대표는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조치다. IRS가 사기에 대처하는 것은 이들 직업의 일부이다. 이를 핑계로 지급해야 할 크레딧을 자격있는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세청은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약 80여만 신청서가 밀려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크레딧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청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주들에게 수수료 부과하거나 큰 금액을 선금으로 부과하는 ERC 신청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일부 ERC 대행업체들이 공급망 단절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경고를 하는 법률적 해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국세청은 광범위한 탈세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거래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합의를 제공해왔다. 이는 수

천명의 납세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세무조사는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지난달 말 국세청은 ERC를 두고 이 같은 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의회에 ERC 크레딧 신청 수정 세금신청 마감기한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법에 따르면 2020년 세금보고는 2024년 4월에 마감되며 2021년 세금보고는 2025년 4월에 마감된다.

미공인회계사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IRS는 사기성 신청을 잡는데 신중을 기해 천천히 처리하더라도 ERC를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두가지 문제를 나누어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아들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에 정말 속을 뻘 했던 사기, 뭐길래

▶▶ 1면에 이어서

천8백만달러였다. 특히 전화로 접근한 사기는 일인당 사기피해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피해자 중 중간 피해금액이 \$1,400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지난 2022년 동안 누군가로 가장한 사기(imposter)에 가장 많이 속았다. 온라인쇼핑 사기가 그 다음이었으며 상품당첨 및 로터리 당첨 사기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투자기회, 사업기회 및 취직 제공 등의 사기였다.

가장 급증세를 보인 것은 사업체로 가장한 사기였다. 특히 일반인들이 신뢰하는 유명 사업체 브랜드 즉, 우체국, 거래 은행, 할푸즈, AT&T, 버라이즌, 아마존 등으로 가장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였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우체국(USPS)을 가장한 오는 전화 문자다. “번지가 정확하지 않아 소포 패키지가 배달이 되지 않았으니 주소지를 새로 기입하라” 는 내용의 문자가 그것이다. 올해 초, 물건을 주문해 놓고 배송을 기다리던 기자는 이 같은 메시지에 아무 생각없이 주소를 다시 입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크레딧 정보를 요구하는 창이 등장하게 되자 이 문자를 의심하고 즉각 중단,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FTC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몇 개의 문자메시지는 이미 스마트폰 문자로 받았던 경험이 있던 내용이거나 유사한 내용이었다.

벤자민 데이비슨 FTC 마케팅 프렉티스 부서의 변호사는 “이 같은 유명 브랜드 업체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상황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 말하고 일단 즉각 응대를 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천천히 대응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제공 이전에 과연 이 메시지가 해당 사업체가 보낸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기 문자 사기를 확인하면 이를 776(스팸)으로 포워드하거나 스팸 또는 정크로 보고하면 된다. 또한 FTC에 보고할 수 있다.

사기범들의 사기수법은 단순한 사업체 위장에서 멈추지 않으며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의 발달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손자나 가족의 목소리로 가장한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놀란 손자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를 받게 되면 이를 그냥 넘길 수 있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절대 이런 전

화를 받고 즉각적으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갑자기 보석(bail)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엄마야빠에 알리지 말라는 등의 전화는 일단 의심하고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공지능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제적인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컴퓨터는 반드시 보안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또한 전화기는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패치를 빠지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어카운트는 번거롭더라도 다중인증 절차(multi-factor authentication.)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부과 기간 변경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겨울 시즌을 두 가격대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드는 전기요금을 변경 기간을 바꾸어 적용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공공사업부(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이하 DPU)는 매사추세츠내에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드에 베이직서비스 전기요금을 부과기간을 2월에서 7월, 8월에서 1월로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언틸은 이미 이 스케줄을 따르고 있다.

공공사업부는 2022년동안 매사추세츠 전기요금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파동으로 60%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주법에 따라 유틸리티 회사들은 6개월에 한번씩 경쟁 입찰을 통해 전기를 구입한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 구입가격을 통해 베이직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이윤 부과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국

제적인 시장환경의 변화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입찰의 시점이다. 어느 시기에 경쟁입찰을 하는가에 따라 전기요금요율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5월에서 10월 11월에서 4월 두차례로 나뉘어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겨울에 가장 비싸게 된다. 따라서 겨울 가장 추운 1월과 2월을 분리해 2월달부터 가격을 새롭게 적용하므로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는 것이 공공사업부의 의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요금변경기간을 변경한다 해서 특별히 요금이 저렴해지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월에 결정된 요금이 2월부터 7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요금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여름 휴가 후 왜 마구 피곤할까, 수면시계 재설정해야

##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위해 해야할 4가지 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여름 휴가가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지난 여름의 습관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휴가 동안에 해외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 또한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여름의 습관이 가을까지 연장되는 경우 잠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차” 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지난 여름의 습관이 지속되면서 수면부족이 누적된다.

UCLA 의대 제니퍼 마틴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잠이 깨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후에 들어서면 평소보다 더 힘들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은 일시적인 충격에만 그치지 않는다. 장기화되는 경우 당뇨, 비만, 그리고 고혈압과 연관되게 된다. 일에 대한 집중도와 반응속도도 떨어진다. 이로 인해 더 짜증을 쉽게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습관으로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늦은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삼가하는 것은 당연히 취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다. 그 외에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팁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제공했다.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확정하라**  
수면 부족을 타파하게 위해 사람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는 일찍 침대에 들어가

는 것이다. 너무 침대에 일찍 들어가면 불면 증 등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마틴 박사는 말한다. “졸리지 않는데 침대로 갈 이유는 없다” 고 그는 말한다.

대신 일정한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설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심지어 주말에도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밀레니얼피지컬그룹의 수면학 과정인 페리아아바시-파인버그 박사는 조언한다.

일찍 일어나게 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마틴 박사는 조언했다. 대부분의 성인은 최소한 7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하므로 최소한 7시간을 잘 수 있는 수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모닝커피를 밖에서 마신다**  
일어난 후 한시간내에 밝은 햇살을 밖에서 몸에 쬐어주는 것은 몸에 내재해 있는 내부 시간 즉 24시간 신체주기(circadian rhythm)에서 정신적 신체적 전환을 유도해 준다.

빛은 인체 내에서 각성 및 수면과 각각 관여하는 호르몬 멜 톤인 및 코티졸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낮시간에서 깨어있음의 수준은 밤시간에 수면의 질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고 마틴 박사는 조언한다.

아바시 파인버그 박사는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아침에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침에 실외 포치에 앉아 커피와 함께 신문 또는 책을 읽거나 개를 산책시켜도 좋다. 이 같은 신체 활동은 에너지를 북돋게 한다.

**할일 리스트를 만든다.**



가을에는 학교 활동 및 회사 프로젝트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침대에 누워 낮에 했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는 잠을 방해한다.

이 같은 생각을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한시간 전에는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적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 내어 종이애다 풀어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스트레스와의 단절 행위이다.

그리고 밤에는 점차적으로 활동을 줄여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판 베드 교수는 3-2-1룰을 제안한다.

잠자기전 3시간 전에는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4시간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배가 부르면 소화기관이 운동하므로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기 두시간 전에는 일을 멈추라. 또한 잠자기 전 1시간 전에는 스마

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

스마트폰의 수면 모드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방해하는 블루 라이트의 방출을 막지만 잠들기 전에 스크린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에어컨을 켜두라**  
일반적으로 침실은 늘 시원해야 하며 조용하고 어두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너무 일찍 에어컨을 끄기도 한다. 아바시-파인버그 박사는 가장 좋은 침실의 온도는 70도라고 말한다. 각자에 맞는 편안한 온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침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에머슨 위크와이어 박사는 말한다. 따라서 침실의 지저분한 옷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침실의 엉망인 상태는 정신적인 산만함을 야기한다” 고 그는 조언했다.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 |        |        |         |
|--------|--------|---------|
| 1~3 등급 | 4~8 등급 | 9~14 등급 |
| 9천만원   | 7.5천만원 | 5천만원    |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 스트레칭으로 살빼는 법! - 운동하기 싫은 날이나 생리중에 해도 좋아요



최근들어 체력이 부족하다 느끼거나, 전날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해 컨디션이 저조한 날, 혹은 생리중이라 격렬한 운동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닐때, 운동 대신 스트레칭 어떠세요? 물론 스트레칭만 한다고 해서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주 2-3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오늘 알려드릴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날씬하고 여러 여러한 몸매를 만드는데 효과적일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휴식과 함께 건강한 식사 챙겨드시고 틈틈이 저와 함께 가볍게 스트레칭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요가워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3) 살빼는 법...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기초부터 이해하며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Low Lunge + Side Stretch : 허벅지안(장요근), 옆구리 스트레칭

1단계 왼발을 앞으로 보내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영상참조) 두 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힘을 바닥으로 낮춘 상태에서 오른손을 머리너머로 뻗어줍니다.

3단계 내쉬면서 왼손을 사선 천정으로 뻗어 왼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4단계 3-5호흡 진행한 후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TIP! 매트가 얇거나 무릎이 약하다면 무릎 밑에 담요를 받치거나 매트를 한번 더 접어 무릎 보호해 주세요.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허리를 보호하며 스트레칭 해주는 것 잊지 마시구요!

## 2. Half Split + Toe Flexion / Extension : 종아리, 발목, 햄스트링 스트레칭

1단계 런지 자세에서 앞다리를 사진과 같이 길게 뻗어줍니다.

2단계 들숨에 무릎을 접고 날숨에 다시 다리를 뻗는 것을 반복하며 다리 뒷면(무릎뒤, 종아리, 발목)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보세요

3단계 3-5회 반복 후 다리를 뻗고 정지, 발끝을 얼굴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발끝을 매트 앞쪽으로 보내기를 반복합니다.

4단계 5회 이상 반복후 반대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TIP! 허리나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척추를 곧게 펴고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 3. Dynamic Pigeon Pose : 허벅지 바깥 승마살 제거, 허리통증 완화

1단계 다운독 자세에서 왼무릎을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가져가 비둘기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이때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지 말고 두 골반의 평행을 맞추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살짝 떼어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를 높게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3단계 다리와 엉덩이 바깥쪽의 스트레칭을 느끼며 3-5회 반복합니다.

4단계 이제는 엉덩이를 낮추고 오른 손을 머리너머로 뻗어 옆구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5단계 영상에 따라 다음에 이어지는 하체 스트레칭을 모두 마친 후 반대 방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TIP! 코어의 힘이 함께 사용하며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좀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주고 두 골반의 균형을 잘 맞춘 다음에 비둘기 자세에서 머물러 줍니다.



## 4. Side Split : 안벅지 내전근 스트레칭, 옆구리와 다리 톤업, 유연성 강화

1단계 두다리를 바깥으로 벌려 앉아주세요

2단계 척추를 곧게 펴고 두 무릎도 최대한 펴줍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해서 두 다리 사이를 벌릴 필요는 없어요.

3단계 들숨에 허리를 펴고 날숨에 한팔은 허



리에 반대쪽 팔은 머리 너머로 뻗어 몸의 옆선을 늘려줍니다.

4단계 3-5회 반복후 반대 방향도 해주세요

TIP! 가슴이 바닥이 아닌 정면 혹은 천정쪽으로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확장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몰니슬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http://www.yogafulness.lif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Shrine, Parish of Corpus Christi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임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특별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처: [stduy@stduy.com](mailto:stduy@stduy.com)  
617-551-2711

46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duy@stduy.com](mailto:stduy@stduy.com) / [stduy.church.org](http://stduy.church.org)  
[www.facebook.com/stduy](http://www.facebook.com/std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매사추세츠 렌트컨트롤 2024년 주민투표안 첫관문 통과

## 1994년 렌트컨트롤 금지했던 주민투표안 철폐할 듯 부동산 업계 강력하게 반발, 자금력을 밀어부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앤드레아 캠퐀 주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 렌트컨트롤 허용을 규정한 주민투표 청원을 비롯해 약 수십개의 청원을 6일 승인했다

이번 캠퐀 법무장관이 승인한 렌트컨트롤 청원은 케임브리지 지역의 마이크 커넬리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1994년 렌트컨트롤을 금지한 주민투표안을 철폐하고 각 시와 타운 자체적으로 렌트 인상 상한, 강제 퇴거 규제, 수수료, 그리고 렌탈마켓에서 하우스윙닛 제거 규제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안이다. 이 청원은 2-3 패밀리하우스로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렌탈유닛과 신규건축한지 15년 이하의 유닛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무장관의 승인은 이번 청원이 주민투표안이 되기까지 여러 장벽 중 첫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 주민투표안으로 가기까지는 거대한 인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투표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7만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명을 대비

해서 10만 서명지를 확보하는 게 상례다. 이를 위해서 서명지 확보전문 회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 회사들은 한 서명당 몇 달러씩을 요구한다.

주민투표안에 포함된 후에도 부유한 상대편과 힘겨운 홍보전을 치뤄야 한다. 그렉 배실 그레이터보스턴 부동산원의 대표는 렌트컨트롤 주민투표안과 싸움에 3천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그룹은 올해 초 보스톤의 렌트컨트롤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데 40만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별써 부동산 업계에서는 즉각 이번 청원승인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업용 부동산 그룹 NAIOP는 이번 청원을 주 최고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렌트컨트롤 철폐 캠페인을 이끌었던 소규모부동산소유주협회는 렌트컨트롤의 복귀는 주택 신규 건축을 막는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며 렌트컨트롤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렌트컨트롤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어떻게 이를 달성해야 하는



지 방법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커넬리 의원의 지원 세력들은 주로 케임브리지와 서머빌 등지의 조직이며 상당수의 하우스링 관련 조직들은 렌트컨트롤을 의회에서 다루야 하며 의회를 통해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주청사 앞에서 렌트컨트롤에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던 세입자 권리 단체들은 올해 주민투표안 청원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번 주민투표 청원과는 별도로 현재 몇 개의 렌트컨트롤 법안이 진행 중이다. 보스톤의 미셸 우 시장은 주 의회에 렌트 인상 상한을 10% 제한하는 청원을 보내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머빌의 시의회는 자체적인 렌트컨트롤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6일 주청사 앞의 렌트컨트롤

청원 승인 환영 집회에 참가한 서머빌 광역구 시의원 윌리 번리 주니어는 2017년 올라가는 렌트비 때문에 자신과 그의 룸메이트가 렌트를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윌리는 “렌트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서머빌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의원으로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도 고가의 렌트 유닛에서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서머빌 만이 아닌 주 전체를 떠나게 된다”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커넬리 의원의 청원이 주민투표안에서 승인되는 경우 주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유권자들이 렌트컨트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美상업용 부동산, 은행부실 뇌관...위험노출액 걸보기보다 커"

### 간접대출 포함하면 4천400조원 ...예금액의 5분의 1에 달해. "공실증가→대출축소→부실증가→가격 하락 악순환"...WSJ 경고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은행업 나아가 미국 경제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대출을 포함할 때 미국 은행들이 가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은 2조2천억 달러(약 3천조원)로 2015년 이후 7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 지방 중소형 은행들 대거 뛰어들었다.

반면 미국 대형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당국 규제와 감시 탓에 위험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 위험노출액을 줄여야 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된 각종 채권 인수도 결국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이나 부동산 대출 전문 리츠(REITs)를 대상으로 한 은행 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WSJ 자체 분석 결과, 이 같은 간접 대출을 포함한 미 은행권의 전체 상업용 부동산 위험노출액은 3조3천억 달러(약 4천400조원)로, 은행권 예금의 20%에 달했다.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경우 이는 빌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출 부실을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미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면 서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금리가 높아지고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간간하게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출 연장보다 채무 불이행을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WSJ은 소개했다.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로 대출 연장을 하느니 담보를 설정한 상업용 부동산을 은행에 넘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증권은 약 9천억 달러(약 1천200조원)에 달한다. 이들 대출은 대부분 현재 금리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실행된 대출들이다.

현재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속출할 경우 은행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베네핏 스트리트 파트너스의 마이클 컴퍼리토 상업용 부동산 책임자는 지적했다.

pan@yna.co.kr



샌프란시스코의 비어있는 상가

## 원유 감산 연장에 국제유가 9일째 상승...100달러 웃돌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9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100달러 돌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85달러(0.98%) 상승한 배럴당 87.54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지난달 2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의 감산 연장 결정이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 우려를 키우며 유가 상승세 지속을 뒷받침했다.

유가 상승세 지속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며 이날 뉴욕 증시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98.78포인트(-0.57%) 내린 34,443.19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1.35포인트(-0.70%) 하락한 4,465.48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148.48포인트(-1.06%) 내린 13,872.47에 거래를 마쳐 14,0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유가 상승 영향과 더불어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미국의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5로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미국의 성장세 지속 및 고금리 장기화 기대를 키웠다. 고유가와 성장세 지속이 물가상

승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채권 금리를 올렸다.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2.90bp(1bp=0.01%포인트) 상승한 4.293%를 나타냈다. 월가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움직임이 유가 강제 위협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브렌트 오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전망은 가능성이 가장 큰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중환호리이비인후이**  
www.jungho.co.kr

**좋은사람들**  
www.jungho.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진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원사이티움**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내 차가 사생활 엿본다... "기아는 정치견해 · 성생활 정보도 수집"

### 애플, 25개 자동차업체 조사... "업체 84%, 운전자 정보 공유"

(서울=연합뉴스) 유철중 기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자의 정치적 견해나 유전 정보 심지어 성생활 같은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가디언은 "자동차가 운전자들에게 '사생활 약몽'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곳은 운전자의 의료 및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해 내

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닛산은 수집하는 정보에는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이 포함돼 있으며 기아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성생활"(sex life)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는 성생활 외에 "성적 성향,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 · 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노조 가입" 등을 포함한 "특수 범주의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운전자가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업체는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산하인 르노와 다치아 등 2곳뿐이었다.

이 두 업체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적용 받는다.

고객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도 마 위에 올랐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조사에서도 보안,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AI)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자율 주행 차량의 이미지

다. 테슬라는 올해 초 직원들이 고객 차량의 영상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모질라 재단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개인 정보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 차량 이용 편의를 높이는 커넥티드 서비스,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의 관심사 등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호출, 차량 내 애플리케이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1조5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에 인터넷이 더 많이 연결되고 자율 주행이 가능해지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yunzhen@yna.co.kr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천지 잘 보려면 돈 더 내라" 中 백두산 요금 추가징수 '원성'

### 조망 좋은 전망대 1천800원 더 받아... "요금 인상 꼼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이 정상에 오르는 관광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징수,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창바이산 조망권 좋은 곳 유료화' 해 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한 네티즌이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 네티즌은 "창바이산 북파(北坡) 코스로 올라 천지가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로 가려고 하자 10위안(약 1천800원)의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이곳에서 천지를 배경으로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비용은 30위안(약 5천500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입장료와 셔틀버스 비용 등으로 225위안(약 4만1천원)을 냈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니 황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창바이산 관리사무소는 현지 매체 흥성신문에 "조망권이 좋은 전망대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며 "이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망대는 창바이산 정상 의 극히 일부"이라며 "이곳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창바이산에 가는 이 유가 정상에 올라 천지를 보기 위해 서인데 조망권이 좋은 곳은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유명 관광지들이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다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했다"며 "창바이산 전망대 추가요금 징수에 대해 관계 당국이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바이산은 중국 50대 관광 명소에 이름을 올린 중국 동북 지방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북파와 서파, 남파 등 정상에 오르는 3개 등산 코스가 있으며 장백폭포 등을 볼 수 있는 북파가 가장 인기 있는 코스다.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가 엄격했던 작년에는 방문객이 70만명에 그쳤으나, 자연경관이 빼어난 데다 울여름 중국에 닥친 역대급 폭염을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올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다. pik@yna.co.kr



천지 조망권 좋은 관람대의 요금 징수 안내문

## 검찰, 송영길 전 보좌진 압수수색... 돈봉투 수수의원 추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 국회의원 특정을 위해 7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보좌진 3명의 주거지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일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송 전 대표가 21대 국회의원인 2020~2022년 당시 보좌진으로 일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수수자 특정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국회의원 모임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송 전 대표의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송영길계 좌장'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본다. 선거일을 앞두고 경쟁 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 정보를 입수한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의원을 돈

봉투 살포 목적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일단 기소한 뒤 현역 의원에 대한 제공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과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며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 있다.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는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릴 당시 이정근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의원 모임 직후 이

씨에게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어"라면서 "김남국, 윤재갑이 들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오빠, 거긴 해야 해, 호남은 해야 해"라고 재촉했고, 윤 의원은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며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알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분석을 끝내는 대로 보좌진들을 소환해 돈봉투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최종 수해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8th - SEP. 14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NEXT LEVEL MENTAICO CREAM YAKI ONIGIRI

Loaded with cheese and grilled to absolute perfection, this onigiri recipe has our hearts and will have yours too. **겉바속꿀의 재미있는 식감과 매콤한 와사비 명란의 조화가 일품인 명란 구운 주먹밥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p>Lago Grape 라고 포도 HALF BOX <b>\$24.99</b></p>	<p>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b>\$1.99</b></p>	<p>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b>\$1.29</b></p>	<p>Kabocha 단호박 LB <b>\$1.49</b></p>	<p>Mineola Orange 미네올라 오렌지 EA <b>\$1.49</b></p>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b>\$0.99</b></p>	<p>Seedless Orri Mandarin 씨없는 오리 만다린 LB <b>\$2.99</b></p>	<p>Ginger 생강 LB <b>\$2.99</b></p>	<p>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3\$3.99 FOR</b></p>	<p>Sweet Potato 고구마 LB <b>\$2.49</b></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10.99</b></p>	<p>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6.99</b></p>
<p>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b>\$3.99</b></p>	<p>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다리 LB <b>\$1.49</b></p>
<p><b>U.S.D.A. CHOICE</b> Frozen 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LB <b>\$13.99</b></p>	<p>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b>\$7.99</b></p>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TONGTONGBAY Cockle Clam on the Half Shell 통통배 자숙 반꼬막 LB <b>\$4.99</b></p>	<p>AED Frozen Roasted Eel Unagi Kabayaki 우나기 9 OZ/PKG <b>\$9.99</b></p>
<p>Frozen Pollock Roe 동태알 LB <b>\$5.99</b></p>	<p>Frozen Abalone 전복 LB <b>\$14.99</b></p>
<p>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b>\$5.99</b></p>	<p><b>FRI/SAT/SUN ONLY</b>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Fillet 연어 필렛 LB <b>\$9.99</b></p>

### SMART CARD MEMBER ONLY

<p><b>H MART SMART CARD ONLY</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4.99</b></p>	<p><b>H MART SMART CARD ONLY</b>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b>\$14.99</b></p>
<p><b>H MART SMART CARD ONLY</b> HYOSUNG Roasted Seaweed 효성 도사락용 고소한 옥동자김 SESAME OIL/GREEN TEA/ GRAPE SEED OIL/OLIVE OIL 0.16 OZ X 12 EA/PKG <b>\$3.99</b></p>	<p><b>H MART SMART CARD ONLY</b> WISE WIFE Dried Dates 와이즈 와이프 산동 대추 16 OZ <b>\$3.99</b></p>

<p>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b>\$14.99</b></p>	<p>THREE CRABS BRAND Fish Sauce 삼계상표 순 멸치 액젓 24 FL OZ <b>\$4.99</b></p>	<p>MIZKAN Soup Base Tsuuyu Oigatsuo 미즈칸 짜유 32 FL OZ <b>\$10.99</b></p>	<p>CHUNGJUNGONE O'Food Premium Oyster Sauce 청정원 오'푸드 프리미엄 굴 소스 17.6 FL OZ <b>\$7.99</b></p>	<p>CHUNGJUNGONE Brewing Vinegar 청정원 양조식초 60.86 FL OZ <b>\$4.99</b></p>
<p>DAERIMSEON SAJO Frozen Fish Cutlet 대림선 사조 흰살 생선가스 21.16 OZ <b>\$6.99</b></p>	<p>YEcheon Red Pepper Powder 예천청결 태양초 고춧가루 PRODUCT OF KOREA 2.2 LB <b>\$28.99</b></p>	<p>SAMPO Canned White/Yellow Peach 삼포 황도/백도 통조림 14.11 OZ <b>\$1.99</b></p>	<p>YOODONG Canned Mackerel 유동 고등어 캔 14.1 OZ <b>\$1.99</b></p>	<p>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형그리 강냉이 5.99 OZ <b>\$1.99</b></p>
<p>HAIO Yuza/Ginger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생강차 2.2 LB <b>\$5.99</b></p>	<p>I WANT 100% Natural Spring Water 아이원트 100% 내추럴 스프링 워터 16.9 FL OZ X 24 EA/PKG <b>\$4.99</b></p>	<p>KOTO Bamboo Steamer 코토 대나무 찜기 21/24/27/30 CM <del>-\$15.99-24.99</del> <b>\$10.99-16.99 EA</b></p>	<p>Waffle Washable Slippers 와플조직 워셔블 실내화 PINK/BLUE <del>-\$12.99</del> <b>\$7.99 PAIR</b></p>	<p>Auto 360 Torch 가스 자동 토치 <del>-\$19.99</del> <b>\$12.99 EA</b></p>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 제 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팀장 한 준 희</b>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 보 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다이애나 김</b>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무리 김</b> 578.434.2043 <small>muri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c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피터 박</b> 617.780.7835 <small>depeter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지나 최</b> 578.886.3248 <small>depi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여 권 주</b> 401.935.3397 <small>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시라 파크</b> 617.888.5787 <small>sara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김</b> 617.435.7713 <small>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현수 김</b> 617.598.8973 <small>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사 송</b> 213.303.0397 <small>mira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키 파크</b> 413.507.1402 <small>mik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순호 김</b>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헌진</b> 617.877.0387 <small>he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영 김</b> 781.850.3412 <small>myeong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은혜숙</b> 781.899.1214 <small>ehsu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장은영</b> 617.315.1162 <small>je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호준</b> 617.543.5728 <small>jiho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레이철 김</b> 617.852.7489 <small>euiseok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8316 <small>shirle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Whyan Yu</b>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lu@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ohn Tran</b>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376 <small>michae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u</b>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9.276.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204.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gela Zullo</b>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코 김</b> 781.598.3409 <small>jeik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강현</b> 857.280.0434 <small>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thony Tran</b> 857.288.46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ra Delangre</b> 413.237.1586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팩트체크] 과거 어느 정부 때 언론 압박 심했나?

세계언론자유지수 · 언론인 평가 언론 자유는 부침...  
이명박 · 박근혜 ·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 ↑

〔서울=연합뉴스〕이웅 기자 =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공방은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 공정성 시비로 비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이명박 정부 때 언론 개입과 방송장악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확정판결과 KBS·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는 민주당 내부 문건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이는 과거 집권기 서로 언론을 압박해 장악하려 했다는 상호 비방과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언론 보도를 바라며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때로는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이 법 테두리를 벗어날 정도로 노골화돼 책임자들이 단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별 언론정책의 공정성이나 언론 간섭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

국가별 언론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로 언론의 자유와 신뢰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언론 자유와 신뢰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 발간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8년 한국어판은 자유도와 신뢰도를 토대로 37개 주요국의 언론 환경을 비교·분석해 봤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언론 환경을 ① 언론 자유와 뉴스 신뢰도 모두 높은 나라 ② 뉴스 신뢰도는 높지만 언론 자유는 취약한 나라 ③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만 뉴스 신뢰도는 낮은 나라 ④ 언론 자유와 뉴스 신뢰도가 모두 낮은 나라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장 바람직한 ① 유형에는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독일이, 가장 취약한 ④ 유형에는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터키가 해당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대만과 함께 ③ 유형으로 분류됐으며, ② 유형은 싱가포르, 멕시코가 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뉴스 신뢰도는 낮지만 언론 자유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평가한 연도별 뉴스 신뢰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22%(25위/36개국), 2017년 23%(36위/36개국), 2018년 25%(37위/37개국), 2019년 22%(38위/38개국), 2020년 21%(40위/40개국)로 거의 매년 최하위에 머물렀다. 2021년 32%(38위/46개국)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이후 2022년 30%(40위/46개국), 2023년 28%(41위/46개국)로 다시 내림세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는 매년 1~2월 46개국에서 나라별로 2천여명씩 총 9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공식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국 중 눈에 띄게 낮은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의 원인으로는 인터넷 언론매체들의 난립과 속보 경쟁, 언론사의 취약한 수익모델로 인한 뉴스 품질의 저하가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심화되는 진영 대결, 정치 양극화와 맞물린 이용자들의 편향적인 뉴스 소비와 이를 부추기는 진영 언론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0년 디지털뉴스리포트에 따르면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44%로 40개국 평균 응답률(28%)보다 16%포인트 높고, 터키(55%), 멕시코(48%), 필리핀(46%)과 함께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이는 우리나라 뉴스 이용자들의 높은 편향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2022년 디지털뉴스리포트에 실린 논평에서 "정파적 뉴스는 이용자에게 강력한 효능감을 부여하고 생산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며 "진보적 뉴스 이용자가 보수 언론을 향해, 보수적 뉴스 이용자가 진보 언론을 향해, 비정파적 뉴스 이용자가 정파적인 언론 전반을 향해 보내는 평가가 융합되어 언론 불신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시기별로 큰 차이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 같은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권 교체로 언론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도 낮은 언론 신뢰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인식 동



## '언론 신뢰도' 시기별 차이 크지 않아... 편향적 뉴스 소비로 세계 최하위권

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는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연도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보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5점 척도 평균)'는 2012년 3.26, 2013년 3.40, 2014년 3.28, 2015년 3.51, 2016년 3.36, 2017년 3.62, 2018년 3.58, 2019년 3.30, 2020년 3.30, 2021년 3.32, 2022년 3.15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언론 자유를 보여주는 지표는 시기별, 정부별로 변화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국가별 순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31위(2006년)까지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까지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47위(2023년)로 내려섰다.

언론인에 대한 위협이나 언론매체에 대한 압박을 감시하는 RSF는 2002년부터 세계 각국(현재 180개국)에서 현지 언론인과 외국 언론사 특파원, 언론 연구자, 법률·지역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언론 자유 수준을 점수화해 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언론 자유 지표로 통한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2018년 국가별 언론 환경을 분석하면서 언론 자유를 비교할 때도 RSF의 조사 결과를 참조했다.

과거 미국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산정한 언론자유지수도 국가별 언론 자유를 비교하는 지표 역할을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0여개국의 점수를 매겨 '언론자유국(F)' '부분적 언론자유국(PF)' '언론 비자유국(NF)'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89년부터 2010년(해당시기 2009년)까지 20년 이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다 2011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돼 2017년(해당시기 2016년)까지 7년간 유지됐다. 프

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 발표는 이후 중단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2년 또는 4년마다 실시해온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일선 언론인들이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5점 척도 평균)는 2007년 3.35에서 2009년 3.06, 2013년 2.88, 2017년 2.85로 떨어진 뒤 2019년 3.31, 2021년 3.44로 회복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후퇴했던 언론 자유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한 일선 언론인들이 다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언론인들의 연도별 응답 추이를 보면 언론인들이 직접 느낀 정치적 압력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론 자유의 제약 요인으로 '정부나 정치권'을 꼽은 응답(복수응답) 비율은 2007년 34.3%(노무현 정부)에서 2009년 56.7%(이명박), 2013년 56.4%(박근혜)로 높아졌다 2017년 30.3%(문재인), 2019년 27.4%, 2021년 32.4%로 낮아졌다.

정리해 보면 일반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 신뢰도는 편향적인 뉴스 소비 등으로 인해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선 언론인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한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는 정부별로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면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평가는 올 연말 나올 예정인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나 내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 골프와 인생 2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3번홀: 첫 라운딩 그리고 목표

약 1주일간의 어설픈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을 통해 방향은 들쭉날쭉이지만 그래도 공이 어느정도 떠서 나가자 변변치 않은 내 골프선생은 나에게 골프 라운딩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학교 내에 있던 골프장이라 매일 수업을 위해 오가며 봐왔던 터라 그리 낯설지는 않았지만 막상 골프백을 둘러메고 골프장 첫홀 티 박스에 올라서니 가슴이 두근두근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 이제 골프공을 티에 올려놓고 저기 멀리 보이는 깃발 밑에 뚝려있는 구멍에 공을 집어 넣기만 하면 된다.

내 골프 선생을, 골프코스는 보통 18홀, 72타로 이루어져 있고 거리가 짧은 숏홀에서는 3번, 일반 레귤러 홀에서는 4번, 거리가 긴 롱홀에서는 5번을 쳐서 홀컵에 공을 넣으면 그것이 이파(Par)란다. 하지만 초보자가 파를 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니 더블보기 즉 파보다 두번 정도 더 쳐서 공을 넣는것을 목표로 라운딩을 하라고 지시한다.

친구이기도 하니 선생을 우습게 본건지 난 선생에게 반발한다.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했다. 난 4번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할테니 지켜봐라” 호기롭게 말 하며 속으로 중얼 거린다. “자! 보통 한 홀의 길이가 350야드정도 되니 드라이버로 한 200야드 치면 남은거리 150야드, 그러면 7번정도 잡고 홀컵 근처로 가면 그린에서 퍼팅 두번, 잘 하면 한번 그러면 최소 파 내지는 버디 잡는다. 뭐 이거 쉽네...” 골프를 어느정도 접해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 없는 생각이였다. 지금 그때로 돌아가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질것 같다. “골프가 맘대로 되면 그제 골프냐? 골프가 우습냐?”

어찌되었든, 허공을 가르며 힘차게 내지른 나의 첫 샷은 공이 10야드도 못가서 페그르르

구르기 시작했다. 남은 거리는 대략 340야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다. 이를 수 없었던 목표의 수정, 이젠 목표고 뭐고 없다. 제발 공아! 뜨기만 해라...

희망과 목표는 엄연히 다르다. 희망은 하고 싶은 그 무엇과 같은 것이고, 목표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첫홀 첫 스윙이 끝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4번홀: 첫 업무 그리고 목표

이제 갓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세상 일 다 할것처럼 천방지축 날뛰던 신입사원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약 한달여 간의 OJT(On-the-job training) 기간 동안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드디어 나에게 첫 임무가 주어졌다.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 회사로부터 컨설팅계약을 수주해 오는 일이었다. 말 그대로 나 홀로 티 박스에 올라간 셈이다. 첫 티샷을 위해 준비할때처럼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업체 방문해서 재고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 할것인가 인지 시킨 후 계약서에 사인만 해 오면 된다.

내 부장 왈, 처음 업체 방문이니 서두르지 말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만 잘 듣고 오란다.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 거린다. “나에게 떨어진 첫번째 임무다 어떻게든 단번에 계약을 성사시켜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라운딩 첫번째 홀에서 200야드를 멋지게 날려 보내겠다는 나의 허황된 희망과 하나도 다를것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목표설정 이었다.. 아니 이걸 목표설정이라 아니라 말 그대로 희망사항을 내 목표인



양 착각한 어설픈 생각이였다.

어찌되었던 나는 업체 담당자와 시간 약속을 잡고 길을 떠났다. 입사해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 대하는 자리... 어색하기 그지 없다. 뭘 말을 꺼내야 하나!, 주도권을 잡아야 할텐데... 조금한 마음에 앞뒤 다 자르고 책에서나 나오는 재고관리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참 떠들다 고개를 들어 업체 실무자의 얼굴을 보니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 첫홀 첫 티샷이 백사리 나듯 미팅은 초반부터 백사리를 내고 있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경험과 실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베테랑 부장앞에서 교과서를 들먹이며 썰을 푸는 내가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그럼에도 그는 입가에 미소만 지은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 어디까지 하나 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첫번째 미팅은 완전 죽었다. 아니 그의 손바닥에서 재롱만 부리다 아무 성과 없이 회사로 복귀했다. 오는 길 내내 책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마치 전날 술자리에서 이말 저말 하다 다음날 술이 깨서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쪽팔려 죽겠네... 하는 마음과 다르게 하나도 없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만 오라는 부장의 지시만 따랐다면 이처럼

참답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후 계속되는 헛발질을 수도 없이 하며 결국 컨설팅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마치 4번에 공을 홀컵에 넣어 파를 잡겠다고 계획이 수도 없는 헛스윙과 백사리로 양파(파의 두배 즉 8번에 공을 홀에 집어넣는 것), 말이 좋아 양파지 양파 이후는 카운팅을 안하는 아마추어들의 관습으로 그냥 양파 한거지 실은 한 트리플 양파(12번)정도로 공을 홀에 집어 넣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첫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나에게 부장은 말한다. "일이 쉽지 않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니 자네도 느간게 있을거다..."

그렇다. 희망과 목표는 엄연히 다르다. 희망은 하고 싶은 무엇이고 목표는 그 희망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S-IS 분석, 즉 지금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히 분석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지 한 후 실현 가능한 TO-BE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골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골프의 능력을 먼저 깨닫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해저드나 벙커를 효율적으로 피해 나가면서 내 능력 안에서 가장 적은 타수로 공을 홀에 집어 넣는 계획을 세우는 것 처럼...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2023년 가을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정기 교사 연수회

주제: 신기술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2023년 9월 9일 오후 6:00~9:30

장소: ZOOM meeting ID: 853 3400 0121  
암호: NE20230909



## 등록



## 참가비

교사 1인 \$15  
학생/학부모 무료  
학교단위로 납부

## 순서

개회식 (6:00-6:30)

- 개회 및 격려사 NAKS-NE 남일 회장, 오인식 이사장
- 축사: 김재휘 주 보스턴 총영사
- 시상식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소개 및 알림

전체 강연 (6:30-8:30)



6:30-7:30 김택수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겸임교수  
국제한국어교육자연구회 이사장  
'인공지능과 디지털 놀이로 여는 한국어 수업'

\*\*실습을 위해 ZOOM 수업 듣는 용도 디바이스 또는 노트북 1개에 추가로 실습용 디바이스 1개 더 필요, 수업용 디바이스 밖에 없을 경우 노트북으로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7:30-8:30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 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전 FTA 외교통상교섭본부 대변인  
'세계화속의 글로벌 리더십'

분반 강연 (선택수강) (8:30-9:30)

유치/기초과정

홍소영 강사  
(실리콘벨리 한국학교)  
'7세까지 모여라,  
신나게 놀자!'

초급 이상

박지혜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온라인 세종학당 강사)  
'배우는 대로 똑똑 기억  
되는 한국어 수업'

보조교사 대상

이혜린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 소개 및  
차세대 리더 교사로서의  
경험 나눔'

## \* 현장 분반 강연 \*

날짜: 9월 9일 오후 2시 이전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실  
'동백꽃 수목화 체험' 김민희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 후원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청



NAKS-NE  
이사회 및 교장단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3) 분산투자의 중요성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Location) 선택인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이 분산투자(Diversification)이다. 분산투자의 개념과 중요성은 투자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자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다.

한국의 매일경제 신문에 의하면 ‘국내에 출시된 중국 관련 펀드 설정액이 한 달 사이에 무려 3244억 원이 감소했다. (20년 중학개미 김부장도 “더이상은 못버터” ... 펀드고 주식이고 다뺐다, 김금이 기자, 매일경제, 8월 18일 2023)’ 고 한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 잠재력 등을 생각하며 본인이 선택한 투자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대박을 은근히 기대한 것이다. 복권을 구매하여 발표날까지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3.6%에 불과하다. 분산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 자산 전체 중 중국 관련 투자는 3.6%

정도만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대박 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것처럼 ‘중학개미 김부장’ 처럼 버티지 못하고 다 팔고 울면서 나오는 것이다.

세계 기업 5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이다. 한 예로 미국 애플(Apple) 기업의 시가총액이 \$3 trillion이다. \$3 trillion이란 3,000 billions 혹은 3 million millions를 말하는 놀라운 숫자이다. 이것은 중국의 모든 기업(2,119)을 합한 총자산(\$2.5 trillion)보다도 더 큰 기업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떠한가?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측면에서 1.6%에 불과하고 세계의 50대 기업 중 2%에 불과하다. 참고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전 세계 60%, 20대 기업 중 15개 기업, 그리고 50대 기업 중 62%가 미국이다.

2020년 팬데믹 시작과 함께 집에 머물며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점 한국 한 증권회사의 주식 전문가가 나타나서 누구나 주식 투자하면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말했다. 전문가는 젊은이들의 주식 투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무려 84%가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여 주부나 아이들도 주식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전문가는 외국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왜 옆집에 사는 자식에게 투자하느냐? 우리 집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그럴듯한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가 작은 이유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 투자자 잘못으로 말한다. 국내기업에 투자하라는 애국적인 표현에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주식시장 규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에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분산투자으로 이익을 얻

어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이며 결국에는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피터 번스타인은 ‘주식시장은 매우 수용적인 기계가 아니다. 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The market’s not a very accommodating machine; it won’t provide high returns just because you need them)’ 라고 책(The Most Important Thing)에서 언급했다. 투자자가 간절히 원하고 희망을 품어도 주식시장은 사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투자자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전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를 염두에 두고 한국, 중국, 미국, 등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 위험성(Risk)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며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3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서 삼국유사(빈녀양모조(貧女養母條)에 등장하는 국선 효종(孝宗)을 따라가 보자.

〈효종(孝宗)이 남산(南山) 포석정(鮑石亭) 혹은 삼화술(三花述)에서 놀때, 문객(門客)이 매우 빨리 뛰어왔는데, 두 사람의 객(客)이 홀로 늦었다. 효종(孝宗)이 그 까닭을 묻자, 말하길, [분황사(芬皇寺) 동쪽 마을에 나이가 스무 살 가량의 여자가 먼 어머니를 안고 서로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말하길, “이 여자의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구걸하여 부모의 은혜를 갚은 지 몇 년입니다. 때마침 흉년이라, 문에 기대어 빌릴 수단이 어려워져,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여 곡식 30석을 얻어, 부잣집에 맡기어 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해질 무렵 쌀을 싸서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드리고 함께 자고, 새벽이 되면 부잣집에 일을 하러 돌아 가니, 이와 같은 것이 며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길, “옛날에 거친 식사(糲糝-겨와 쭉정)에도 마음은 편안했으나, 근래에 향기로운 맵쌀에도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였다. 여자는 그 사실을 말하

니, 어머니는 통곡하고, 여자는 자신이 단지 입과 배를 봉양하기만 하면서, 부모 앞에서 얼굴 빛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을 탄탄하며, 까닭에 서로를 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느라 늦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효종(孝宗)은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곡식 1백 휘를 보냈고, 효종(孝宗)의 부모도 또한 의복 1습(襲) 보냈으며, 효종(孝宗)의 천명의 무리(徒)는 조租 1천 석을 거두어 그것을 보냈다. 이 일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았는데, 이때 진성왕(眞聖王)은 곡식 500 석과 집 1채를 하사하였으며, 병사를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하여 도적을 경계하였다. 또 그 방(坊)에 기(旗)를 세워 효양리(孝養里)라 하였다.

후에 그 집을 기부하여 절이 되었는데, 이름을 양존사(兩尊寺)라 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효녀 지은(知恩)으로 삼국유사에서는 빈녀양모(貧女養母)로 등장하는데, ‘지은(知恩)’ 과 ‘빈녀(貧女)’ 는 동일인이다. 삼국사기에서는 ‘한기부(韓基)의 백성(百姓) 연권(連權)의 딸’ 로, 삼국유사에는 분황사(芬皇寺) 동쪽 마을에 살았다고 기록된 것도 동일한 지역이다. 한기부(韓基)는 신라(新羅) 6촌(宗)의 하나인 금산(金山)기촌인데 금산은 경주 북쪽의 소금강산을 가리키며, 현재의 경주 북천(北川) 이북의 황성동(皇城洞), 동천동(東天洞) 지역으로 유추한다. 분황(芬皇)사는 현재 구황동(具皇洞)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 동쪽은 보문동(寶文洞)인데, 북천(北川) 이북의 동천동(東天洞) 역시 거의 동쪽으로 볼 수 있다. 두 사서를 종합해 보면 지은(知恩)은 현

재의 동천동에서 살았고, 한기부(韓基)는 배씨(裴氏) 성의 집성촌이었으니 지은(知恩) 역시 배씨였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지은(知恩)의 나이, 즉 김효종(金孝宗)이 그녀를 도와 주었던 시기에 그녀의 나이는 조금 다르게 나온다. 삼국사기에서는 32세, 삼국유사에서는 20세 가량인데, 그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아버지(裴)연권을 여의고 홀어머니(삼국유사에는 맹인이다)를 모시고 살다가, 점점 풀팔이도 어려워졌고 구걸도 마땅치 않아 종살이를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딸을 안고 통곡하니, 삼국사기에서는 김효종(金孝宗)이 놀러가다(遊) 직접 보았고, 삼국유사에서는 포석정(鮑石亭) 또는 삼화술(三花述)에서 놀다가(遊) 객(客)으로 부터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김효종(金孝宗)이 곡식 100석과 옷을 실어다 주었고 그의 휘하의 화랑도들이 한 석씩 거두어 준 것과 진성(眞聖)왕이 이 소식을 듣고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한 것 등이 모두 동일하다. 또한 그 재물을 빼앗기거나 도둑을 맞을까 염려하여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지키게 한 내용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을 효양방(孝養坊(里))이라고 명명한 것도 같다. 다만 삼국유사에서는 후일 그 집을 기부하여 절이 되었는데, 그 절이 양존사(兩尊寺)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사실(여부를 떠나)이라면,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一善)이 승려였기에 이 점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그 집이 사찰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대신 ‘표를

올려 그 아름다움을 당나라 황실에 아뢰었다’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도 불교문화가 융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부식(金富弼)의 유교관과 사대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을 통하여 여러가지를 더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신라 하대의 하층민들의 일상과 윤리관, 또한 하층민들의 생활고로 인해 조금 가진 전답을 팔고(진골 귀족들은 쉽게 구입하고)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변하거나, 대토지 소유자의 노비가 되거나, 자식을 노비로 파는 것 등이다. 지은(知恩)의 효행 포상은 유교 윤리의 부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화랑의 국선(國仙) 효종(孝宗)의 미담(美談)은 효를 왕의 하사품(표창)은 결국 효의 선양을 통하여 충을 강조하여 하대의 무너져가던 왕실의 지배력을 회복하려 했음이 아니었겠는가?

기록상으로는 경순왕(景順王) 김부(金夫)의 아버지인 국선(國仙) 김효종(金孝宗)이 화랑도의 마지막 우두머리이다.

다음은 화랑도가 조직되기 전에 있었던 원화(源花) 화랑이 조직되어 풍월주(風月主) 화랑도를 이끌 당시에도 잠시 존재했던 원화(源花) 화랑도의 여자 우두머리(女頭)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7th - SEP. 14th, 2023**

**Frozen Half Cut Crab** **\$5.99**  
3L SIZE - 1.5 LB/PKG **LIMIT 5**

**ENCORE SAL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미 이민국(USCIS), 국익면제(NIW)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의사에 대한 증빙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지침 발표

국익면제프로그램, 즉 The national interest waiver(NIW)는 신청자가 자신의 종사 분야에서 이론 전문적인 성과에 따라 노동 인증 절차(PERM)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국익면제를 위한 기본자격은 고학력자로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2023년 8월 16일, 미 이민국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또는 미국 재향군인회의 시설에 근무했던 경력을 기반으로 국익면제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 이민을 원하는 의사들에 대한 증빙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먼저 노동인증절차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DOL)가

노동인증절차의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본질적으로 노동인증과정의 프로세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가 미국의 노동 시장을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회는 자신의 분야에서 이론 성취를 입증할 수 있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 특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재능 있는 개인에 대해 '채용 제안 요구사항'이나 노동인증절차를 면제하는 영주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국익면제 즉 National Interest Waiver(NIW)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적합한 이민신청자들에게 '노동인증절차'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원자들이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영주권을 더 빨리 취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1999년에 미국의회는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소외된 지역이나 재향

군인회의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외국 의사들을 위한 노동인증절차의 면제, 국익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간호구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연방 기관이나 모든 주정부의 공중 보건국은 해당 지역이나 시설에서 외국 의사의 업무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간호구호법을 통해 의회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6일, 미국 이민국은 국익면제 제도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 의사에 대한 증빙 요구사항 중 한 개의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지침에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재향군인회의 시설에서 근무한 이력을 기반으로 국익면제제도에 따른 이민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 의사는 청원서와 함께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구되는 임상 의료 경력 기간을 포함하는 고용 계약 또는 고용 서약서. 외국 의사가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또는 고용 약약서가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고 여기에 날씨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이 6개월 요건은 청원서 제출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시작된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의 업무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공익에 부합할 것임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 또는 주 공중 보건국의 공식적인 서신. 의사가 아직 의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 서신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고 날씨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6개월 요건은 청원서 제출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시작된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 9월 16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술술 잘 풀려 나가는</b></p> <p>● 운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쉽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고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애정: 많은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대를 더 깊이 알게되고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6일 길일, 10, 12일 주의.</p>	<p><b>소띠   발전에 발전을 더해 나가는</b></p> <p>● 운수: 크게 나아지지는 않으나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전에 발전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 금전: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면 잘 풀리고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일은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누구를 짝사랑하거나 어려운 교제를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만남을 기다려 보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범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b></p> <p>● 운수: 새롭게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고 경사가 있겠습니다. ● 금전: 일이 성사되니 그에 따른 이득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여유가 생기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 애정: 때로는 쌀쌀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정작 본심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토끼띠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처럼</b></p> <p>● 운수: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어 가는 때이니 마음이 차츰 안정될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척척 풀려나기 금전적인 이득도 크겠습니다. ● 애정: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처럼 어려움을 헤치고 평화를 갖게 됩니다. 더욱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b>용띠   능력에 맞춰서</b></p> <p>● 운수: 변화를 주거나 이사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능력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지나친 욕심이 도리어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애정: 웬지 모르게 초조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한 번 의식이 생기면 점점 커지고 그 의식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b>뱀띠   실생활은 소홀히 하기 쉬운</b></p> <p>● 운수: 지금은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내 스승이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내 적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금전: 포부가 너무 크면 사소한 일이나 실생활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생각 없이 지출 하다가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에 부딪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애정: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르다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져도 그냥 지나가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말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b></p> <p>● 운수: 협력자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보통 때보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교체비로 인한 지출이 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화려하게 펼쳐질 애정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애정이 불타올라 가능성이 짙은 시기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b>양띠   확신을 가지고</b></p> <p>● 운수: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한 뒤에 확신이 생긴 후에 추진하세요. ● 금전: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금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4일 길일, 13, 16일 주의.</p>	<p><b>원숭이띠   다음에 성사시키도록</b></p> <p>● 운수: 동업이나 특히 친인척간에 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아직은 어려움이 있으니 투자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는 마루어서 다음에 성사시키도록 하세요. ● 애정: 화가 화를 부르고, 그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화가 넓게 퍼지면 결국 힘든 것은 자신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닭띠   천천히 진행시키도록</b></p> <p>● 운수: 정보도 수집하고 새로운 구상도 해야 하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 금전: 매매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익이 생기게 되니 천천히 진행시키도록 하세요. ● 애정: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매사 동글동글한 처세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6일 길일, 13, 15일 주의.</p>	<p><b>개띠   원활하게 돌아가는</b></p> <p>● 운수: 직장에서의 일이 좋아집니다. 상사나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금전: 수입과 지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황한 욕심이 발동하거나 과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 애정: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끈은 끊어지고 새로운 끈과 연결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3일 길일, 10, 16일 주의.</p>	<p><b>돼지띠   때를 기다리도록</b></p> <p>● 운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니 때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도리어 일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니 다시 생각하세요. ● 애정: 혼자서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상대가 다정스런 말 할 마디 건네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할 마디를 건네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ant.com 으로 연락주세요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영화 '30일' 강하늘 "이렇게까지 찌질한 캐릭터일 줄이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누구나 찌질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찌질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하하."

영화 '30일'의 주연 배우 강하늘은 6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캐릭터를 연구하던 당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 3일 개봉하는 '30일'은 서로를 견디다 못해 이혼하게 된 젊은 부부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기억을 잃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강하늘은 지성과 외모는 갖췄지만, 찌질한 성격의 남편 '정열' 역을 맡았다.

강하늘은 앞서 코믹 연기를 선보였던 '스물' (2015), '청년경찰' (2017), '동백꽃 필 무렵' (2019) 등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30일'을 통해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출을 맡은 남대중 감독은 "강하늘은 우리나라에서 멋짐과 찌질함을 호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배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열의 아내 '나라'는 정소민이 연기했다. 강하늘과 정소민은 '스물'을 통해서도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강하늘은 "시나리오를 읽고서 어떤 분이 나라를 맡을까 생각했는데, 소민씨가 한다고 해 '이건 됐다, 편하게 찍을 수 있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정소민 역시 "편안하고 든든했다. (촬영 기간) 서로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면서 "의견도 많이 내면서 신나게 촬영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뚝뚝하고 커리어가 탄탄하지만, 약간의 '뜯기'(생각과 행동이 모자란데가 있는 성격)가 있는 캐릭터"라고 나라 역을 소개했다.

남 감독은 몸을 사리지 않고 코믹 연기를 한 정소민을 두고 "은퇴작 같은 느낌



깊이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기해줘서 고맷다"며 웃었다.

이어 "두 배우 모두 (단순히) 망가져서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다양한 표정 연기로 서로를 열받게 하는 '연기 배틀'을 했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현장에서 보여줘 시나리오보다 더 재밌게 나왔다"고 말했다.

'30일'은 이번 추석 연휴 쏟아져 나오는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경쟁 대열에 합류한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9월 21일), '거미집'·'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1947 보스톤'(9월 27일) 등 4편이 '30

일'보다 먼저 개봉한다. 이 가운데 '1947 보스톤'을 제외한 3편이 '30일'과 같은 코미디 장르인 만큼 경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남 감독은 이에 대해 "'30일'은 불편한 코미디가 아니라 연인이 보기에, 가족이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라면서 "기억, 사랑, 이별 등 가족끼리 얘기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강하늘은 "개봉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며 "정열과 나라의 관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관객들 역시 가족을 떠올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브, 내달 첫 미니음반...트리플 타이틀곡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아이브가 다음달 13일 첫 번째 미니음반 '아이 해브 마인'(I'VE MINE)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아이브는 새 음반 타이틀곡으로 '이더웨이'(Either way),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배디'(BADDIE) 세 곡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신보 발매에 앞서 이달 25일 '이더웨이'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 '오프 더 레코드'와 13일 '배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먼저 공개한다.

아이브는 이날 공식 SNS에 신보 발매를 알리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아이브는 2021년 12월 '일레븐'(ELEVEN)으로 데뷔한 이래 '러브 다이브'(LOVE DIVE),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 '키치'(Kitsch), '아이엠'(I AM)에 이르기까지 내는 노래마다 히트를 기록했

다. 아이브는 다음달 7~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해브'(SHOW WHAT I HAVE) 서울 공연을 열고 팬들을 만난다.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0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살다 보면 삶의 폭이 좁아지고 깊어지는 계기를 만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연륜이 쌓여간다는 의미일 게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세상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어 좋은 것들도 솔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뉘기 공부 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씨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말버릇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거니와 더욱이 고쳐줄 수는 없는 까닭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이 있어 제각각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낸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제각기 다른 것이다. 그 다른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슬리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기까지도 하는 것이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며 밀어내기에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이렇듯 나와 다른 것은 모두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어떤 명

제를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무엇인가 빠른 답을 얻기 위한 흑백논리를 통해 빠른 결정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음을 알지만 때로는 내게 버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가 싶기도 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던가. 그렇다, 삶에서 좋은 일도 연이어 오기도 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일도 연이어 오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맞닥뜨린 당사자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버거운 시간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는가. 내 일이 아니라서 꼭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내게도 더 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까닭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

이렇듯 삶은 늘 불안정한 수위를 돌고 돌며 안정을 맞추려 애쓰는가 싶다. 이만큼 걷다 보면 언덕길을 만나고 험악거리는 숨으로 고개를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올라 깊은 호흡으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오르는 길은 길따라 오르지만, 내려오는 길은 더욱 조심해야 함을

알 것이다. 그만큼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 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니 어찌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해서 다른 사람의 지금의 불행함을 남의 것이라 여길 수 있을까 말이다. 오르내리는 인생길에서 내 몸을 잘 지탱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겪는 아픔이 고통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닌 까닭이다. 그것은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를 생각해 보자. 내 가족이 건강의 적신호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이 와서 수많은 말로 위로를 한들 그 위로가 얼마만큼 귀에 들어오겠으며 더욱이 마음에 들어오겠는가 말이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시름에 있는 시간에는 백마디 말보다 살며시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 주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인 것이다.

삶에서 친구나 친지에게 어려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잡아 주면 그것으로 최고의

위로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연이어 힘든 일에 훈수를 두거나 흥을 보려 하거든 차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마저도 따뜻하게 잡아주면 좋을 일인 게다. 세상은 돌고도는 일인 까닭에 그 어려움이 그 버거움이 언제 내게 올지 모를 일임을 안 이유이다. 그저, 그렇게 따뜻한 마음 담아 손 한 번 꼭 잡아줄 수 있음으로 나와 그와 그리고 더불어 훈훈한 정이 돌고 돌아 내게로 올 까닭이다.

요즘은 TV나 SNS 그리고 정치나 사회 그 어디에서도 고운 말이 그림다. 요즘은 잘된 글과 말에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한데 '모츠스기' 초성글자까지 나와 머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세상은 초고속으로 변하는데 사람만 제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무엇보다 내 마음과 말은 제대로 잘 있나 흔들려 세워보아야겠다. 쓸 말, 안 쓸 말, 버려야 될 말 들을 하나둘씩 주워 모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고운 말을 쓰고 실천하는 한 해로 마음을 세워보아야겠다.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따뜻한 마음의 손으로 다 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셀폰인가 핸드폰인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여름 이른 오후 한국 지하철 풍경이다. 한가롭기 짝이 없을 터. 요즈음에야 전철 안에서 전화기 잡고 큰 소리로 수다 떠는 승객도 없을 게다.

몇해 전 한국신문 칼럼에서 읽었다. 1964년 한국이다. 당시 한국인의 연소득은 250달러 근방이었다. 한국 대학생 1000명에게 물었다. '35년이 흐른 1999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상당수는 '300달러'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큼도 안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1999년 실

제 국민소득은 9천달러에 가까웠다던가.

다시 1964년 한국이다. 한국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적이다. 별로 이상하지도 않은데, 한국엔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다. 독일대통령은 흔쾌히 비행기를 빌려줬다. 한국대통령은 날으는 비행기 안에서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 사진에선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그가 한 말이란다. '세상이 좋아져 날으는 비행기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다.'

언젠가 읽었던 조크 하나다. 미국인들은

지하철안에서 종이신문이나 책을 읽는다 했다. 칭찬 받을만한 광경이다. 그러나 전철이 지상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너나없이 셀폰을 꺼내들고 들여다 본다. 지하에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는 거다. 한편 한국인들이야 지상은 물론 지하 전동차 안에서도 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한국 시 한편이다. ...습관처럼 애인처럼 핸드폰에 고정시키고서 늦은 밤 귀가하는 말없는 사람들. 삶은 얼마나 고달픈가! 사람

은 얼마나 외로운가!(정연복, 핸드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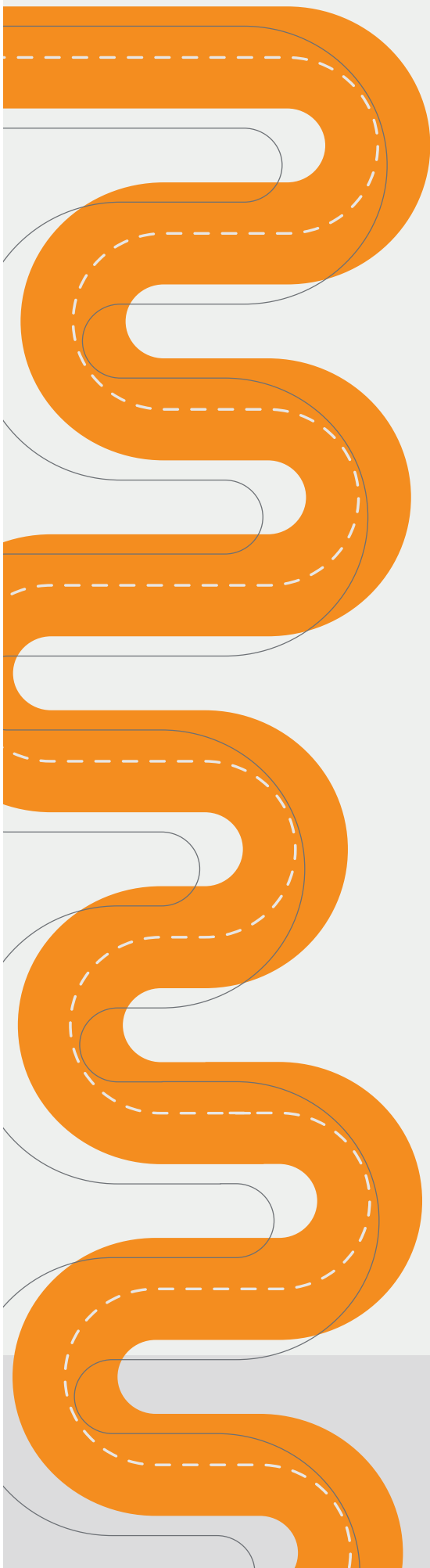
그나저나 휴대전화 참 편리하긴 하다. 날으는 비행기안에서도 터지는가? 터진다면 통화도 가능한가? 아마 그럴게다.

한국 유명 칼럼니스트는 1964년 즈음 이렇게 썼다. "상상해 보라. 전국 집집마다 전화가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편할 것인가...". 격세지감이다.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 4:16)



#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세요.



## 1 단계 필요 서류 준비

#1 신분 및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여권과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결혼 증명서 두 가지 문서를 제출하세요.

#2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경우, 지원서에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SN(사회보장번호)이 발급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3 메사추세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 2 단계 등록을 위한 예약은 여기에서 Mass.Gov/MyRM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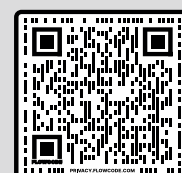


## 3 단계 연습 면허 시험을 봅니다.



## 4 단계 Mass.Gov/MyRMV 를 방문하여 도로 주행 테스트 일정을 잡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Mass.Gov/RoadTest 방문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ss.Gov/WFMA](http://www.Mass.Gov/WFMA)  
방문 또는 전화  
857-368-9362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책과 운동 방해하는 대표 족부질환은?

최근 건강에 좋은 산책, 조깅 야외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 등 족부질환 때문에 걷는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들도 존재한다.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김 재영 과장의 도움을 받아 족부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은 주로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걸린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54,746명 중 40~60대 여성이 30,194명으로 무려 55%를 차지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도 전체 환자 265,346명 중 약 30%(79,478명)가 40~6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돌출되면서 둘째 발가락쪽으로 휘어져 변형된 상태다.

유전적으로 평발이거나 볼이 넓은 발에 생기기 쉽지만 하이힐 등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한 경우 발생 위험성이 높다. 가장 흔한 증상은 돌출부위의 통증이다. 돌출부위가 지속적으로 신발에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한다.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번째와 세번째 발가락에 쪽에 힘을 신는 경우가 많다. 이때 두번째, 세번째 발가락의 발바닥 부분에 굳은살이 생기고 통증이 오기도 한다.

무지외반증은 발가락의 변형이 심하다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의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치료를 달리한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심하지 않다면 변형을 악화시키는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발가락의 돌출부위나 나머지 발가락 아래가 자극되지 않게 신발 안에 교정깔창을 넣는 방법도 있다. 만약 변형의 정도가 심하거나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통증이 크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술을 통해서 돌출된 부위의 뼈를 깎고 치우친 뼈의 각도를 교정하며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 조직을 늘려준다.

**족부질환** 무지외반증 · 족저근막염

2021년 진료환자수 중 40~60대 여성 비향 (연령대별 분포)

무지외반증 55% (환자 1인)

족저근막염 30% (환자 1인)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 관절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며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변형된 상태

발바닥 구부러진 신발 착용, 무지외반증 교정용 깔창 사용, 발바닥, 통증이 두면 수술치료 고려

**족저근막염** 발바닥근부의 끝부분 끝까지 이어지는 족저근막이 손상을 입어 생긴 염증

안마, 마사지, 체외충격치료

지도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족저근막은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앞쪽까지 이어져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올릴 때 도움을 주는 등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 달리기 등 발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또 딱딱한 바닥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자주하다보면 족저근막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을 입어 근막에 염증이 생긴다. 또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나 하이힐 등을 즐겨 착용하다보면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져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일단 무리한 운동량이나 잘못된 운동방법, 불편한 신발 등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다.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주사를 이용한 약물치료, 체외충격과 등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비침습적 시술로도 족저근막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동맥색전술 (TAME: Transarterial micro embolization)은 대퇴동맥을 국소마취 후 가느다란 미세도관을 통해 발바닥 족저근막 주변 동맥에 색전물질을 주입해 염증 혈관을 막는 방식이다.

“산책과 운동 방해하는 대표 족부질환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TBOplay**

# 한국방송을 저렴하게 시청하는 방법을 아세요?


한국TV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Bill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855-826-4636  
617-949-1766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Piano Extravaganza**  


---

 Three Generations  
 of Pianists  


---

 Saturday  
**September 30**  
 7:30 PM  


---

 Jordan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김정자



변화경



백혜선



손민수



변은선



신창용

General \$30/ Senior \$20  
Student free admission with registration

Works for Piano Four Hands and  
Two Pianos

Tickets and more info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Mozart | Debussy | Copland/Bernstein  
Schubert | Ravel



Minsoo Sohn photo credit by Shin-Joong Ki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